

우리는 언제 깨달음의 연못에 몸을 던질 것인가?



20 깨침의 서기가수친 각연사

각연사는 속리산국립공원에 포함되는 칠보산(778m)과 보개산(780m)의 깊숙한 계곡이 합쳐지는 곳에 있습니다. 재미있는 장건 설화가 전하는 유서 깊은 고찰입니다.

신라 법흥왕 때 유일(有-) 대사가 쌍곡리에 절을 짓기 위해 공사를 하는데 이상하게 매일 대궐밥이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라 생각하고 유심히 관찰해 보니 밤마다 수 백 마리의 까치들이 날아와 대궐밥을 몰고 어디론가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까치들을 따라갔는데 울창한 산길에서 하늘을 나는 새를 놓쳐 버렸습니다. 낙심하고 돌아서려는데 발아래 대궐밥이 일렬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기이하게 여기고 그 길을 따라가 보니 숲 속에 연못이 있었고 까치들은 대궐밥으로 그 연못을 메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유일 대사는 다른 스님들에게 그 사실을 말했고 함께 연못을 찾아 온 스님들이 "이곳이야말로 천하의 명당"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연못 자리를 메우고 절을 짓기로 했는데 공사를 시작하려는 순간 연못 속에서 광채가 수구쳐 올랐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연못 속에 석불 한 구가 잠겨 있었습니다. 급히 꺼내보니 아주 아름다운 비로자나부처님이었습니다. 그런 기이한 일은 절을 더 정성스럽게 짓도록 했고 마침내 공사를 마치고 절 이름을 '각연사(覺淵寺)'라고 했습니다. 깨달음이 연못속의 부처님으로부터 비롯했다는 '각유불어연(覺有佛於淵)'의 의미를 절 이름에 담은 것입니다. 지금 비로전에 모셔진 비로자나 부처님(보물 제433호)이 바로 그 부처님입니다.

깨달음의 인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 인연을 만나고 있을까요? 그 인연은 뭔가 특별한 계기를 통해 오는 것은 아닐 겁니다. 순간순간 닥쳐오는 모든 경계가 다 깨달음의 길로 이어져 있을 것입니다. 업장이 두터워, 탐착심이 치성해, 분별심이 쉬져 얇아 수시로 다가오는 깨달음의 인연을 눈 놓아채는 것일 뿐입니다. 선지식의 한 말씀과 닭 우는 소리와 발에 차이는 돌 소리에 귀가 번쩍 열리고 마음이 훌쩍 벗어 나는 기원은 간절한 구도심이 오매불망 이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것에 끌리고 저것을 보면 저것에 끌리는 중생심을 고쳐 성인의 마음을 이루는 것이 수행일 것입니다. 각연사의 장건설화도 지극한 정성으로 불사를 하려는 스님들에게 영지를 점찍어주는 부처님의 기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장건 각연사를 중창한 스님은 통일(統-) 대사이십니다. 자세한 행적이 전하지 않는 통일 대사는 고려초기의 고승으로 각연사에 그 부도와 탐비가 전합니다. 절 마당 어귀에는 여러 석조부재들이



각연사에서 1km 남짓 떨어진 산능선에 서 있는 통일 대사 부도와 보안 장치. 우측 사진은 통일 대사 탐비와 귀부의 머리.



장건 설화 속 비로자나 부처님 단아한 모습 '압권'

통일 대사 탐비 귀부와 이수 조각 뛰어난... 부도는 가파른 능선위에 있어 부도 앞 도난방지시설 필요하지만 조망엔 '방해'

늘려 있는데 그 가운데 제법 우람했을 부도의 옥개석이 눈에 들어옵니다. 절 위 쪽 너른 북밭에 북을 얹고 놓여진 귀부(龜趺)가 어느 고승의 탐비였다면 이 옥개석은 바로 그의 부도 중 일부가 아닐까 생각하게 합니다. 각연사도 긴 역사를 지내오면서 많은 유물을 잃어버렸고 그 기록조차 희미해진 것입니다.

절 앞마당에서 계곡 쪽으로 난 길을 따라 들어갑니다. 300여 미터를 간 곳에서 길가에 서 있는 두 개의 석종을 만납니다. 왼쪽 키가 1미터 조금 넘는 정도의 석종은 품에 '선적당탑(善跡堂塔)'이란 글씨를 뚜렷하게 새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적당이 어떤 스님이 엮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른 하나의 석종은 키가 조금 더 큰데 글씨는 읽을 수 없습니다.

두 개의 석종을 관문으로 삼아 지나갑니다. 다시 300여 미터를 오르다가 왼쪽이 흰한 곳에 이릅니다. 그 흰한 곳을 들여다보면 개울 건너 당당하게 서 있는 통일대사탐비(보물 제1295호)가 손짓을 합니다. 선이 굵은 귀부와 화려한 이수로 장식된 탐비는 천년의 세월을 말해 주는 듯 몸통의 글자들이 대부분 지

워졌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 몸통에는 3500여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판독 가능한 글자는 260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나마 그 정도를 읽음으로써 탐비의 주인을 알 수 있고 시대를 알 수 있으니 다행입니다.

귀부는 어김없이 여의주를 들고 있는데 인상이 매우 강렬합니다. 비석을 떠받치는 귀부는 원래 거북 형상이었습니다. 거북이는 정수를 상징하므로 귀부 위에 설치하는 비의 영구한 유지를 기원하는 마음을 귀부를 조각했습니다. 그 연원은 당나라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처음에는 온전한 거북의 형상이었다가 나중에 머리를 용으로 대체 합니다. 누구였을까요? 여의주를 입에 문 용의 머리를 거북의 몸에 결합시킬 생각을 한 사람은. 아마 그 사람은 틈속에 사는 거북의 신령스러움과 물과 땅과 하늘을 두루 통하는 용의 신통 자체함을 빌어 탐비의 영원한 보전과 그 주인의 덕화가 세세생생 이어지길 염원하는 마음이 하늘에 사무쳤을 것입니다.

이수(鸞首) 역시 그런 비원의 표현입니다. 허공에서 몸통을 보호하는 뿔개 역할을 하는 이수에 교룡

(蛟龍, 뿔이 없는 용)을 새긴 것은 비석 자체의 신령스러움을 극대화 하고 그 주인의 행화를 지키려는 마음을 담은 것입니다.

귀부와 이수가 아름답고 화려하게 조성된 탐비들은 대개 통일신라 말기에서 고려 초엽, 그러니까 선종의 화려한 문이 열리고 선불교가 흥성하던 때였습니다. 왕권국가에서 구산선문이 열리고 우렁찬 법문이 산하를 뒤흔들던 그 시절, 큰 스님들이 왕의 귀를 받고 중생의 애환을 어루만지던 때의 고승들이 그 높은 덕행을 화려하고 웅장한 탐비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통일 대사의 탐비는 마모가 심해 그 주인에 대한 많은 정보를 주지는 못합니다. 통일 대사는 신라출신으로 속성이 김씨입니다. 중국에서 구법 수행을 하고 귀국해 왕실에서 불법의 진리를 강론했다고 합니다. 이는 왕실과 민초들에게 상당한 존경을 받던 고승임을 알게 합니다. 그러던 대사가 임적하자 960년 무렵(고려 광종 11년)에 왕이 통일대사라는 시호를 내렸 습니다. 비문은 한림학사 김경언이 찬했습니다.

고려초기의 직선적 힘이 느껴지는 탐비를 여러 바퀴 돌면서 눈 새김을 하다가 부도가 모서진 능선을 옹뚝합니다. 능선 오르는 길은 아주 가파릅니다. 탐비를 보기위해 계곡을 건너간 그 자리에서 계곡을 건너지 않고 45도 각도로 좌회전을 하면 그 가파른 비탈이 부도로 가는 길입니다. 언뜻 지나치면 거기 길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나무에 걸쳐 놓은 빨간 리본을 이정표 삼아 짙은 짙은 산길을 오르거나 오르막 능선을 한 잠깐 곳에서 통일 대사의 부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시원합니다. 짙은 한 바가지나 흘러내려 올라왔지만 부도 앞에 서면 온 산의 바람이 다 그리로 몰려오는 듯합니다. 탐비의 영역이 그랬던 것처럼 부도의 영역도 말끔하게 정비가 됐습니다. 2008년 정비 불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부도는 석재들이 이리저리 흩어진 채 오랜 세월 그 아름다움을 잃고 있었습니다. 1965년에 부도 자리와 석재들이 발견돼 보존되다가 1982년 복원돼 오늘에 이릅니다. 지금은 거의 온전한 형태를 되찾았지만, 상륜부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 부도가 통일 대사의 것이라는 추정은 그 아래 계곡에서 있는 탐비에 의한 것입니다.

부도는 팔각원당형을 충실히 지키고 있으며 문양이 화려하지 않지만 매우 기품이 있습니다. 250cm 가량의 키에 하나의 석재로 이뤄진 지대석과 안상석이 연안을 새긴 복련석을 받치고 있습니다. 귀꽃이 남아 있는 것은 매우 선명하고 화려한데 세 개는 완전히 떨어져 나갔고 하나는 파편을 간신히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도 통일 대사의 부도는 매우 안정적입니다.

이제로는 부도 앞에 설치한 도난방지 시설입니다. 부도보다 훨씬 높은 키의 쇠파이프에 달린 무인 카메라가 눈을 부도로 고정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카메라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집결판이 설치됐습니다. 절에서 먼 곳이라 관리가 수월치 않을 것은 당연합니다.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고 태양열 발전 설비를 구축하는 것은 부도를 보존하는데 불가피한 시설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도 바로 앞에 설치된 이 장치들이 부도의 아름다움을 감상 하는 데는 방해가 됩니다.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도 한 통속의 일인가 봅니다.

까치가 줄이어서 절터를 점지해 주고 여러 고승들이 덕화를 배풀던 도량 각연사. 지금은 마당가에 국립공원에서 경내지를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국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반세기 가까이 제약을 받아 온 사찰의 자주성을 이제는 되찾자는 것입니다. 왕의 귀의를 받았던 천년 전의 고승은 그 고존한 법향을 전해주고 있는데 중생계는 아직 깨달음의 연못(覺淵)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일 대사의 부도 앞에서 합장하고 서서 생각해 봅니다. 일체 중생이 깨달음의 연못에 풍령풍령 몸을 던질 그 날은 언제일까를.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2010 불교달력출시

국6절 · 12절 · 두달 · 차절이 · 미니 · 다이어리 · 탁상 · 한지

창립 35주년 기념으로 달력가격 대폭인하 !!!

4호 산사모가는길

8호 관음도

10호 동자승의하루

16호 산사에피는연화

41호 선의세계

불교달력과 불교용품은 직접 생산, 판매 [공장직영] * 달력카다루 · 용품카다루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세요.

동진기획 · 붓다쇼핑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번지
TEL (051) 515-8888 FAX (051) 508-0101
H.P 011-554-2988, 011-879-0889
E-mail dongjin8888@naver.com

불교용품 불교서적 불교달력

- 침향/주목/염주/염주머니/양초/향
- 사경책/사경지/한지108사경/우리말사경
- 4·8용품/등표/전선·전구/청사초롱
- 공단등/바림등/만월등/봉축·생일카드
- 예수계용품/영가웃/탑다라니/다포

검색창에 [붓다쇼핑] www.buddhashopping.com * 대량구입시 가격은 인터넷 또는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찰도 화재보험 가입할 수 있다!

현존 대부분의 사찰은 전통적인 목조건물로 축조되어 있고, 초·향·장작등에 노출되어 있어 항상 화재 위험이 상존합니다. 또 대부분 산지에 위치하는 관계로 화재 발생 시 초기진화가 어려워 막대한 재산손실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비단 화재 뿐만 아니라 사찰을 운영하며 교화표교활동을 벌이다 보면 온갖 사고와 자연재해, 신도들의 인적 물적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찰도 합리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 사찰 종합 보험 상품 안내

구분	화재	화재	상해
기본 담보	화재손해	시설소유 배상책임	24시간 상해
선택 담보	구내폭발손해 풍수재해손해 지진손해 악의적인 파괴행위 손해 협정보험기액	물질손해확장장보 구내치료비 주차장배상책임 생산물(음식물) 배상책임	교통손해 간병비 질병시상 수술비용

유의사항 : 보험회사의 현장위험 심사(실측)후 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시 필요자료 : ◆각 건축물의 건축(증개축)년도 및 면적
◆각 보험목적물의 종류 및 수용장소
◆각 보험목적물의 구입년도 및 단가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203호
011-648-1203 | 010-7344-1881